

 <b>국토교통부</b>	<h1>보도참고자료</h1>	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<b>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</b> 
	<b>배포일시</b>	2017. 12. 15(금) 총 2매(본문2)	
<b>담당 부서</b>	도시재생사업기획단 기획총괄과	<b>담당자</b>	• 과장 윤의식, 사무관 조민우 • ☎ (044) 201-4904
	도시재생사업기획단 지원정책과	<b>담당자</b>	• 과장 박준형, 사무관 김동혁 • ☎ (044) 201-4912
<b>보도일시</b>		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## ‘동지내몰림, 투기대책도 없이...도시재생 개문발차’ 보도 관련

-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와 관련하여서는,
  -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지역별 상황\*에 맞는 동지 내몰림 대응책 및 부동산 시장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계획에 포함하였으며,
    - \*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재정을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
  - 정부는 지자체가 뉴딜사업을 신청한 직후부터 사업대상지 별로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에 착수하여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.
    - 그 결과 부동산 시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격성 검증단 회의를 거쳐 사업지 1곳(세종시 금남면)을 금번 선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.
  - 선정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동산 가격 급등, 투기발생 등 문제가 있으면 사업시행 시기를 조정(연기 또는 중단)할 계획입니다.
- 평가 적정성과 관련하여서는,
  - 지자체에 선정 및 평가권한을 대폭 위임(Bottom-up 방식)하여, 금번 시범사업을 신청한 219곳 중 166곳(약 75%)에 대해서는 16개 광역 자치단체가 자체 평가단을 구성하여 선정하였습니다.

- 또한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전 협의, 컨설팅단 (약 900여명) 운영 등을 통해 지자체의 계획 수립 및 평가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적극 지원하였습니다.

□ 주민 참여 및 역량강화와 관련하여서는,



- 금번 시범사업은 주민참여 등 “준비된 사업”을 선정하는데 중점을 두고, 주민협의체 구성 등 주민 주도의 거버넌스가 구축된 곳을 선정하였습니다.
- 정부, 지자체, 지역 대학 등이 주관하여 주민,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스튜디오형, 강의형, 워크숍형 등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,
  - \* '17년 추경예산(27억원)을 활용하여 총괄코디 양성교육, 코디 등 양성 교육, 주민 교육 등을 시행
- 도시재생사업지원 예산('18년 예산 33억원) 등을 활용하여 맞춤형 교육, 표준프로그램 개발, 성과평가, 사후관리강화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.

□ 등지 내몰림 현상 우려와 관련하여서는,

-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을 추진하여 상생협약 체결의 근거를 마련 ('17.12.8, 국회 의결)하였으며,
  - 기존 상인 등이 저렴한 임대료로 안심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 공급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 초 ‘(가칭)도시재생 뉴딜 로드맵’에서 제시할 예정입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(노컷뉴스, 12.15. 인터넷) >

◆ 등지내몰림, 투기대책도 없이...도시재생 ‘개문발차’  
 - 한 달여만에 속전속결 심사...주민 참여 배제한 채 부작용 속출 우려

 	<p>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기획총괄과 조민우 사무관(☎ 044-201-4904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-	---